

## 애착, 관계적 자아 및 도덕성 간의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김 성 희

방 회 정<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성 발달에 애착 및 관계적 자아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애착 및 관계적 자아 검사의 하위 요인들이 도덕성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남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콜버그 이론에 근거한 도덕성 발달은 전반적으로 애착 및 관계적 자아 특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애착의 경우, 전체적으로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애착이 모두 관련되었고, 세부적으로는 남학생 집단과는 달리 여학생 집단에서만 어머니 애착과 도덕성 발달 간에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관계적 자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타인의식, 관계적 긍정경험, 관계중시, 도구적 관계, 공감배려 순으로 도덕성과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남자의 경우는 관계중시만 도덕성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 애착 및 관계적 자아의 특성 중 관계적 긍정경험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들이 길리건의 배려의 도덕성과 관련지어 기술되었고, 그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관계적 자아, 애착, 도덕성 발달, 성별범주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 교신저자 : 방회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 hjbang@ewha.ac.kr

도덕성 발달에서의 성차에 대한 의문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활발히 논의되어 온 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많은 비평가들이 여성들은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도덕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Freud의 생각을 비판하였으며, 도덕적 추론에 대한 Kohlberg의 이론 역시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Kohlberg의 연구 기준이 되는 도덕성 추론에 대한 몇몇 연구는 남성에게 유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김제한, 1998). 왜냐하면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는 남성들이 대개 여성들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격히 살펴보면 이것은 남녀에 따른 성차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성차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견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Gilligan(1982)은 Kohlberg가 여성의 주요 관심사와 관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는 남성에게는 단호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지만, 여성에게는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도덕적 갈등은 Kohlberg가 제시한 도식과는 달리 자신과 타인의 갈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적 사회화과정에 대한 국내연구로 김광웅과 방은령(1992)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동기에 형성된 도덕성이 성인기까지 유지되는 경우와 도중에 소멸되는 경우 및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도덕적 혼란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인의 도덕성은 개인 생활은 물론 가정과 이웃 및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형

성되고 발달되며, 성장 과정에서의 가정 분위기  
와 교육 및 각종 경험이 개인의 도덕성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도덕성 발달은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도덕성 발  
달 연구를 통해 ‘관계성’의 맥락에 초점을 두  
고 도덕성과의 연결점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  
애 초기에 맺게 되는 모-자녀간의 정서적 관  
계인 ‘애착’과 근래 자기 심리학 분야에서 새  
로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관계적 자아’에  
관한 문제를 도덕성 발달과 연계 지워 보려고  
한다. 즉 부/모 애착과 친구 애착 및 관계적  
자아의 특성이 도덕성 발달과 어떤 관계에 있  
는지를 조사해보고 그 각각의 영역들에서 남  
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애착과 도덕성

도덕성 발달 요인의 범주에는 가정 분위기,  
사람과의 접촉, 사건, 책, 종교, 사교의 성숙,  
그리고 다양한 생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았으며, 특히 가정의 분위기와 사람과의  
관계는 도덕성 발달 요인에 큰 영향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승혁, 2002).

→특히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  
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매우 강렬하고 지속  
적인 감정으로 Bowlby(1982)는 어떤 연령에서  
도 믿을만한 타인으로부터 접근성과 반응성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인간은 가장 잘 적  
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 같은 측면에서 애착은 도  
덕성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편 Piaget는 아동의 도덕 판단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또래가 미치는 영향을 더

강조했고, Kohlberg는 그 두 요소를 모두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왜냐하면, 또래와 부모는 역할 채택 기회의 두 원천이 되므로, 비록 이러한 기회가 가정과 사회에 따라 다를지라도,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Kohlberg는 문화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다른 역할 채택 기회는 도덕 판단 단계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사회 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은 집단보다 도덕발달 단계를 더 느리게 통과해감을 확인한바 있다. 결국 개인의 도덕성 발달은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관계적 자아와 도덕성

Neisser(1988)에 따르면, 자아는 생태학적 자아(ecological self), 상호적 자아(interpersonal self), 확장된 자아(extended self), 사적 자아(private self), 그리고 개념적 자아(conceptual self)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생태학적 자아와 상호적 자아는 개인으로 하여금 도덕적 자아의 모습을 형성하도록 해준다고 한다. 우선 생태학적 자아는 우리가 감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상호적 자아는 초기 유아기에 형성되는 자아로, 상호 인간관계를 통해서 소속되고, 반응하고 상호 교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같은 상호작용적 행동은 교환적(reciprocated) 행동을 수행하도록 해주며, 나아가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아와 관련된 문제는 융통성(flexible)과 적응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David a.

Jopling, 2002). Mead(1934)에 의하면 자아는 개인적인 인지의 상호작용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및 그룹 내에서의 영향의 상징적인 작용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호작용 내에서의 경험적인 요소는 자아와의 관계성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less & Forgas, 2000). 여기서 자아의 표현 형식은 상호 작용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며, 이러한 관련성은 개인의 심리적인 보호 및 강화의 동기를 마련해준다(Brewer & Gardner, 1996).

특히 관계적 자아는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자아 개념의 국면으로써 관계적 자아는 관계가 있는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사람들과의 역할 혹은 유의미한 관계 내에서의 지위(position)에 따른 정의를 통해 생기게 된다(Seikides, & Brewer, 2002).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 자아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그 자아가 속한 사회 내에서 자율성, 통제,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나 전략적으로 자아의 모습을 결정 내리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결정성이야말로 사회 내에서 개인의 도덕성 정도를 표출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도덕성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도덕적 발달 과정을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덕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도덕성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이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정 먼저 대하는 사회는 가정이며, 만나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도덕성 발달은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선행 연구들은 인생의 초기 과정에서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 변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방은령, 1994).

한편 도덕에서의 관계성이라는 차원과 관련하여 Gilligan(1977)은 배려의 도덕성은 여성과 좀 더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같은 배려의 도덕성은 Kohlberg(1984)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서가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분위기란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어울릴 수 있는 감각을 형성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실제로 도덕교육이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방식에 의한 실험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배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로운 공동체 학교에서는 가족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 사이에서 책임 내지 배려로 이루어진 특수한 연대감을 개발했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결국 배려의 도덕성은 집단의 심리적인 연대감을 요구하며 이러한 결속은 배타적인 집단의 이기성으로서가 아니라 서로서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연대감의 도덕성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도덕성 발달과 성차

집단주의 문화는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상호의존적 자아(interdependent self) 및 집단적 자아(collective self) 개념을 갖게될 수 있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사회의 근본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독립적 자아(independent self) 또는 사적 자아(private self) 개념이 우세하다(김지경, 김명소, 2003).

일반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동아시아 및 동

양의 경우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자아를 구성하고 있음이 여러 비교 문화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왔다(Hofstede, 1991).

Markus와 Kitayama(1991)는 이와 같은 자아유형을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construction)이라 불렀고, 이와 비교하여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능력,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자아에 초점을 두는 자아 정의를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construction)이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해석(self-construction)이라는 것은 타인들과의 관계와 타인들과 구별되는 자아에 대한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서구의 경우는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개인적이고 자율적이며,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성향이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반은 여성보다는 남성을 기술했는데 더 많이 적용되었다(Gilligan, 1982). 사실상 여러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요인들이 남성에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요구했으며, 여성에게는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의 발달을 증진시켜왔다 (Bakan, 1966)

Cross 등(1977, 2002)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반면 여성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양사회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아해석이 상호의존적인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김지경·김명소(2003)는 Cross의 견해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는 서구의 여성들보다 더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 양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왜냐하면 가족 중심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우리문화의 특성이 여성으로 하여금 좀 더 관계 지향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을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상진(2001)도 한국인의 자아는 자신에게 고유한 실재하는 것을 찾고 구성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심성과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결국 한국의 여성들은 사회가 부여한 역할로서 자신을 정의하고 자아를 그런 역할에 중점을 두고 해석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남성과는 다른 관계적 자아를 발달시켜왔을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도덕성의 핵심이 관계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도덕 판단력 발달의 성차에 관한 연구(고재혁, 1987)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성차가 있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도덕성 발달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도덕성 발달에서의 성차의 문제를 애착 및 관계적 자아와 같이 관계성을 가정하고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도덕성 발달을 재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연구문제

1.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 관계적 자아 그리고 도덕성 발달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한 남녀차가 있는가?
2.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 관계적 자아 그리고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각각 남녀차가 있는가?
3. 남녀에 따라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과

관계적 자아가 도덕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자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100명(여학생 47명, 남학생 5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 연구자료

관계적 자아를 측정하기 위해 방희정 외(2006)가 개발한 관계적 자아 척도를 사용하였다. 관계적 자아 척도는 41문항,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의 내용은 공감배려, 긍정경험, 주도성(agency), 관계회피, 타인의식, 도구적인 관계, 관계중시이다. 각 문항은 6점 척도 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점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방희정 외(2006)의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공감배려 .79, 긍정 경험 .79, 주도성 .75, 관계 회피 .83, 타인의식 .84, 도구적 관계 .80, 관계 중시 .70이었다.

대학생들의 부모, 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IPPA-R(옥정, 1997)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IPPA-R은 세 개의 하위 요인(신뢰, 의사소통, 소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들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음으로(장휘숙 외, 2002), 전체 점수를 사용하여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Kohlberg는 청소년기에는 도덕적으로 성숙하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부터 사회적인 관점으로, 사회적인 관점으로 부터 보편적인 관점으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도덕적 관점을 각각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으로 명명하였다. 각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어져 모두 6단계로 구분되는 Kohlberg의 도덕판단 검사에 관해 Rest(1979)는 검사시행과 채점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객관식 표준화 검사로 전환시킨 DIT(Defining Issues Test)를 제작하였다.

Rest의 DIT는 Kohlberg의 주관식 개인 면담 방법을 객관식 표준화로 변환 제작하여 도덕판단 능력 검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용린(1986)이 제작한 한국형 DIT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들은 제시된 딜레마 이야기를 읽고 행동 선택을 한 뒤에 주어진 12개의 질문 문항을 읽고 이들이 각기 행동 선택 시에 얼마나 고려되었는지를 평정하게 된다. 그리고 난 후에 한 이야기에 딸린 12개의 질문 문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 문항을 순서대로 기록한다. DIT 채점은 객관식으로 이루어지며, 채점결과는 개인별, 단계별 점수와 개인의 도덕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P(%) 점수와 D 점수, 그리고 신뢰성 없는 피험자를 가려낼 수 있는 M 점수, 피험자가 행동 선택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이 지닌 도덕 판단의 일반도식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는 활용도 지수 U점수가 제시된다. P(%) 점수는 각 딜레마의 12개 문항 중 피험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4개 문항의 순위를 기초로 산출되는 점수이고, D점수는 모든 문항에 5단계로 평정한 평점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점수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는 P(%)점수이며, 이 지수는 피험자의 도덕 판단 중에서 5,6단계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므로, P(%)점수가 높을수록 그 피험자의 도덕 판단 수준이 높은 단계임을 알 수 있다.

한국형 DIT에 대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P(%)점수 .64, D점수 .69로 나타났다(박찬주, 1989). 문용린(1994)은 DIT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P(%)점수가 .70~.80이며, 내적 일치도 지수인 Cronbach  $\alpha$ 는 .70으로 일반적으로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 분석은 SPSS/PC+, Version 12.0을 사용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 관계적 자아 그리고 도덕성 발달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 및 친구 애착, 관계적 자아, 및 도덕성 발달에서 각각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라 부/모 애착, 친구 애착, 및 관계적 자아가 도덕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남녀 대학생들의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 관계적 자아, 그리고 도덕성 발달의 관계

도덕성 발달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

표 1. 각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공감 배려	관계적 긍정경험	주도성	관계 회피	도구적 관계	관계 중시	타인 의식	도덕성 발달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친구 애착
공감 배려	1										
관계적 긍정 경험	.561**	1									
주도성	-.076	.123	1								
관계 회피	-.279**	-.353**	-.253*	1							
도구적 관계	.297**	.221**	-.059	-.165	1						
관계 중시	.421**	.513**	-.016	-.136	.371*	1					
타인 의식	.415**	.449**	-.144	-.026	.515*	.524**	1				
도덕성 발달	.215*	.326**	-.035	.011	.280*	.313**	.351**	1			
아버지 애착	.408**	.476**	.096	.089	.383*	.483**	.545**	.236**	1		
어머니 애착	.524**	.545**	-.141	.029	.699*	.694**	.839**	.455**	.537**	1	
친구 애착	.203*	.317**	.061	-.097	-.001	.239*	.024	.165	.197*	.176	1

\* $p < .05$ , \*\* $p < .01$

보기 위해서 각 변인들 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제시되어 있는 결과처럼, 공감 배려( $r=.215, p<.01$ ), 관계적 긍정 경험( $r=.326, p<.01$ ), 도구적 관계( $r=.280, p<.01$ ), 관계 중시( $r=.313, p<.01$ ), 타인의식( $r=.351, p<.01$ ), 아버지 애착( $r=.236, p<.01$ ), 그리고 어머니 애착( $r=.455, p<.01$ )에 있어서 도덕성 발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과 관계적 자아,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집단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결과는 <표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의 도덕성 발달과 관계 중시

( $r=.278, p<.05$ )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 집단의 도덕성 발달과 관계적 긍정 경험( $r=.500, p<.01$ ), 도구적 관계( $r=.375, p<.01$ ), 관계 중시( $r=.429, p<.01$ ), 타인 의식( $r=.386, p<.01$ ), 어머니 애착( $r=.506, p<.01$ )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 관계적 자아 그리고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의 남녀차

성별에 따른 부모 및 친구 애착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애착과 친구 애착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

표 2. 남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친구 애착, 관계적 자아 및 도덕성 발달

	공감 배려	관계적 긍정경험	주도성	관계 지향	도구적 관계	관계 중시	타인 의식	도덕성 발달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친구 애착
공감 배려	1										
관계적 긍정 경험	.590**	1									
자기 주관성	-.164	.045	1								
관계 지향	-.343*	-.434**	-.190	1							
도구적 관계	.193	.084	.078	-.082	1						
관계 중시	.473**	.491**	-.0432	-.164	.346*	1					
타인 의식	.418**	.436**	-.131	-.115	.462*	.601**	1				
도덕성 발달	.078	.027	-.119	-.034	.159	.278*	.219	1			
아버지 애착	.509**	.519**	.016	.053	.398*	.540**	.539**	.222	1		
어머니 애착	.477**	.500**	-.070	-.067	.679*	.748**	.844**	.248	.592**	1	
친구 애착	.184	.329*	.044	-.223	.062	.255	.000	-.022	.195	.199	1

\* $p < .05$ , \*\* $p < .01$

표 3. 여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친구 애착, 관계적 자아 및 도덕성 발달

	공감 배려	관계적 긍정경험	주도성	관계 회피	도구적 관계	관계 중시	타인 의식	도덕성 발달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친구 애착
공감 배려	1										
관계적 긍정 경험	.513**	1									
주도성	-.011	.303*	1								
관계 회피	-.235	-.398**	-.332*	1							
도구적 관계	.407**	.487**	-.214	-.304*	1						
관계 중시	.318*	.621**	-.018	-.113	.414*	1					
타인 의식	.369*	.409**	-.178	.051	.564*	.382**	1				
도덕성 발달	.248	.500*v	.154	-.073	.375**	.429**	.386**	1			
아버지 애착	.273	.434**	.161	.101	.349*	.426**	.530**	.146	1		
어머니 애착	.551**	.541**	-.258	.100	.731*	.633**	.820**	.506**	.450**	1	
친구 애착	.200	.281	.077	.049	-.110	.201	.012	.286	.177	.095	1

\* $p < .05$ , \*\* $p < .01$



애착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t=-3.05, p<.01$ ).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자( $M=3.82, SD=.45$ )가 남자( $M=3.51, SD=.52$ )보다 어머니 애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관계적 자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계적 자아의 하위 요인 중 공감배려, 자기주관성, 관계지양, 타인의식, 도구적 관계, 관계 중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계적 자아의 하위 요인 중 관계적 긍정 경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3.48, p<.01$ ).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여자( $M=4.84, SD=.48$ )가 남자( $M=4.30, SD=.96$ )보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발달에 따른 남녀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7.15, p<.01$ ).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자( $M=56.21, SD=13.48$ )가 남자( $M=37.93, SD=12.07$ )보다 도덕성 발달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관계적 자아,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 그리고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애착, 관계적 자아가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Cohen과 Cohen(1983)의 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독립변인을 회귀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모델 1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회귀분석에 포함시켰고, 다음으로 모델 2에서는 관계에서의 긍정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모델 1의 회귀분석의

표 4. 부모 및 친구 애착에서의 남녀차

척도	남자(n=53)	여자(n=47)	t
	M(SD)	M(SD)	
아버지 애착	3.44(.30)	3.54(.34)	-1.55
어머니 애착	3.51(.52)	3.82(.45)	-3.05***
친구 애착	2.89(.36)	2.96(.33)	-.95

\*\*\* $p < .001$

표 5. 관계적 자아에서의 남녀차

관계적 자아	남자(n=53)	여자(n=47)	t
	M(SD)	M(SD)	
공감배려	4.24(.63)	4.43(.58)	-1.52
관계적 긍정경험	4.30(.96)	4.84(.48)	-3.48***
주도성	3.61(.84)	3.65(.94)	-.24
관계 회피	2.75(.99)	2.92(.90)	-.90
도구적 관계	3.16(.85)	3.35(.79)	-1.17
관계 중시	3.58(.92)	3.71(.61)	-.81
타인 의식	4.01(.92)	4.37(.83)	-1.99

\*\*\* $p < .001$

표 6. 도덕성 발달에 따른 남녀차

척도	남자(n=53)	여자(n=47)	t
	M(SD)	M(SD)	
도덕성 발달	37.93(12.07)	56.21(13.48)	-7.15***

\*\*\* $p < .001$

표 7. 여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어머니 애착 및 관계적 긍정 경험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어머니 애착	.506***	.333**
관계에서의 긍정경험		.320**
$\Delta R^2$	.256***	.072**
$R^2$	.256	.328
F	15.492***	10.761**

\*\* $p < .05$ , \*\*\* $p < .001$

결과를 보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도덕성 발달의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 $\beta=.506, p=.000$ ). 모델 2에서 관계적 자아의 하위 요인 중 관계에서의 긍정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했을 때 도덕성 발달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33, p<.05, F \text{ change}(1, 97)=10.761, p<.001$ ). 여학생 집단과는 달리 남학생의 경우, 도덕성 발달에 애착 및 관계적 자아 변인 모두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 1~4학년을 대상(남학생 53명, 여학생 47명)으로 애착, 관계적 자아 및 도덕성 발달에서의 남녀차를 알아보고, 나아가 애착 및 관계적 자아 특성이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관 분석 결과 도덕성 발달은 전반적으로 어머니 애착 및 아버지 애착과 상관이 있었으며, 친구 애착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 도덕성 발달은 애착과 상관이 없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도덕성과 관련되었다. 관계적 자아 특성에서도 전반적으로 도덕성 발달과 관계적 자아 특성의 하위 변인 간에 타인의식, 관계적 긍정 경험, 관계중시, 도구적 관계, 공감배려 순으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관계중시만 도덕성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여학생의 경

우 관계적 긍정 경험, 관계중시, 타인의식, 도구적 관계 순으로 도덕성 발달과 상관이 있었다.

→애착, 관계적 자아 및 도덕성 발달에서의 남녀차를 살펴본 결과, 애착의 경우 어머니 애착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어머니 애착이 높았다.

관계적 자아의 경우 하위 요인 가운데 관계적 긍정 경험에서만 남녀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계적 긍정 경험이 더 많았다. 그러나 관계적 자아의 나머지 하위 요인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도덕성 발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 결과들과는 다르게 남학생에 비해 오히려 여학생의 도덕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애착, 관계적 자아 특성이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만 어머니 애착과 관계적 긍정 경험이 도덕성 발달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 애착 및 관계적 자아 특성 모두 도덕성 발달을 의미 있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을 중심으로 하는 Kohlberg 척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오히려 높은 도덕성 점수를 보였다. 이는 도덕적 추론에서 여성이 남성에 뒤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부분이다.

둘째, 도덕성과 관계적 자아의 관련성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도덕성은 관계적 긍정 경험, 도구적 관계, 관계중시 및 타인의식과 관련성이 높은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관계중시만 도덕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남성의 경우 도덕성 판단이 관계적 자아 특성과 비교적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셋째, 도덕성과 애착간의 관계에서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도덕성은 어머니 애착과 관련성이 높은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모든 종류의 애착과 상관성이 낮았다. 이는 여학생과는 달리 남학생에게서는 애착이 도덕성발달과는 비교적 무관함을 시사할 수 있다.

결국 Kohlberg 이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의 경우 애착이나 관계적 자아의 특성으로 일부 설명될 수는 있으나, 이는 여성 집단에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함의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관계적 자아 특성의 경우 관계적 긍정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차원 모두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를 통해 한국 남성들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서구 남성들에 비해 관계적 자아가 발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남성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관계적 자아의 특성에는 도구적 관계성이라는 측면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덕성 발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의 하나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 집단이 전형적으로 여성성이 높은 집단이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성성이 발달한 여대생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로 인해 일반화의 제약이 있음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도덕성 발달수준에 대한 고정관념에 재검토를 요구하게 된다.

Kohlberg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Gilligan (1982)의 배려의 도덕성 관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Gilligan은 Kohlberg의 이론은 정의, 공정성 및 권리를 지향하는 남성 중심의 도덕성을 상위 수준의 도덕성으로 보는 반면에, 배려, 감정 이입과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도덕 판단을 하위 수준으로 규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결과적으로 Kohlberg의 측정 기준에 따르면, 여성의 도덕판단 수준은 남성의 그것보다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illigan은 도덕성을 공정성 지향과 배려지향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일한 수준의 도덕성 지향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Gilligan이 의미하는 공정성 지향은 Kohlberg의 도덕지향 중 규범적 질서 유지 및 공정성 지향과 유사한 개념이며, 배려지향은 Kohlberg의 도덕 지향 중 이기적 결과, 공리적 결과 및 이상적 결과 지향한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Gilligan의 비판 이후 그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daniels, D'Andear & Heck, 1995; Garmon et al., 1996; Gibbs et al., 1984; Gilligan & attanucci, 1988; Walker, 1989)이 도덕지향에서의 성차를 살펴보았으나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Kohlberg식 척도를 사용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보인 점은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덕성 발달 경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관계적-상호 의존적 자아를 다룬 연구들(Cross, 2000)에서도 단순한 성차 내지는 개인의 관계적 성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 발달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들을 애착 및 관계적 자아와 같은 관계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로써 도덕성 발달 연구의 방향이 도덕적 추론 중심의 연구에서 관계성을 고려한 도덕성 발달 연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계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도덕성 발달이 관계적 자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하위 요인별로 남녀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남성의 도덕성 발달에서도 관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 남성들도 도구적 관계성이 발달하였으리라는 점에서 도덕성 발달과 관련되어 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을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나 관계적 자아와 같은 개인의 관계성 특성 변인을 직접적으로 다루으로써 도덕성 발달을 성차 뿐 아니라 개인차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관계적 맥락을 다룬다고 해도 주로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정 및 사회적 변인을 통해 도덕적 판단 능력의 발달을 본 연구들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도덕 판단력 발달 연구(김성기, 1988),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도덕 판단력 발달 연구(하영란, 1990), 그리고 출생 순위에 따른 도덕 판단력 발달 연구(김성기, 1988)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도덕 발달에서의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차 문제를 개인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이 많았다는 점과 짧은 시간 내에 설문을 통해 다양한 측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애착 및 관계적 자아 변인을 중심으로 도덕성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수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도덕성 발달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Kohlberg에 근거한 측정도구 외에 Gilligan의 관점이 반영된 도구의 개발 혹은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으로도 도덕성 발달은 보다 보완된 방법론에 의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승호, 고인자 (2003). 중·고교생의 도덕판단 능력과 배려성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42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1.
- 권승혁 (2002). 도덕성 발달과정의 자기 보고 분석. 한국도덕교육학 연구회, Vol.3. 59-84.
- 고재혁 (1987),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그 교육적 함의,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고윤주 (1997). 발달심리학을 위한 또 하나의

- 접근 방법: Chaos이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14.
- 김광웅, 방은령 (1992). 아동기의 도덕적 사회화 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은하 (2003). 낯선 상황에서 영아들의 애착 행동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금 (1994). 도덕교육에서의 정의와 배려의 도덕성. 한국교육회, Vol. 12. pp. 39-54.
- 김제한 (1998). 발달심리학. 학문사
- 김중순 (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 영속성 보존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 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 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9(2).
- 나유미 (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용린, 문미희 (1993). 한국 청소년의 도덕 판단력 발달 연구 개관. 청소년학 연구, 1(1), 43-57.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 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응임, 박성연 (1994). 낯선 상황의 애착 유형 분류에 관한 일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2(3), 59-170.
- 방은령 (1994). 도덕적 발달과정에 관한 자기보고의 내용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2007).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 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13(3), 23-63.
- 백혜정, 이순목 (2002). 학교 적응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도덕 판단: 도덕발달 단계 및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57-79.
- 서문옥 (2000).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과제 수행 시 어머니-유아간 상호 작용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손혜련 (199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모 자간 애착 유형 기질 및 어머니의 애착 행동 간의관계,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 양연숙 (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 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현숙 (2003). 푸코의 윤리: 자기의 배려에서 광기의 윤리로. 경희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Vol.7. 185-213.
- 유효순 (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모 (1996). 인지과학: 개념적 기초. 이정모 (편) 인지심리학의제문제: 인지과학적 연관. 서울: 성원사.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조숙자 (1999). 다이나믹 이론이 발달심리학적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16-128.
- 최해훈 (1997).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상민, 김도환 (2001). 발달심리학의 발달과

- 심리학적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
- Amrden, G., and Greenberg, M.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16: 427-454.
- Bakan, D (1996) Some Reflections About Narrative Research and Hurt and Harm, *Ethics and Process in the Narrative Study of Lives*, Josselson, R. (ed) Thousand Oaks, CA: Sage
- Bless H., and Forgas J. P. (2000) *The Message Within. The Role of Subjective Experience in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randen.N (1992), *power of self-esteem*, Health communications.
- Brewer, M. B., & Gardner, W. L. (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 Brewer,M.B. & Sedikides, C. (2002),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Routledge
- Cairns, R. B. & Ornstein, P. A. (1978). *Developmental psychology*. In Hearst(Ed.). *The first century of experimental psychology*. Ildale, NJ: Erlbaum.
- Constantine sedikides & Marilyn B. Brewer (2002).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and Collectiveself*, Psychology Press
- David A. Jopling, A(2002), *Self of selves, The conceptual self in context*. cambridge univ.
- Dewey, J (1996). *Democracy and Education*, N. Y. Macmillan.
- Gilligan C. (1977).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s of the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 Rew. vol. 47:* pp. 481-517.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Harvard Univ.Press.
- Hepburn Elizabeth R. (1993). Women and Ethics: a 'seeing' justi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3(1), pp.27-38.
- Hofstede, Geert, (1984) *The Cultural Relativity of the Quality of Life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9(3), 389-398.
- Hofstede, Geert,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Intercultural Cooperation and its Importance for Survival*, Canbridge, England: McGraw-Hill.
- James A. Holstein & Jaber F. Gubrium (2000). *The Self We Live By*, New York Oxford, Oxford Univ. Press.
- Kohlberg, L. (1990). *High School Democracy and Educating for a Just Society*, Mosher. Ralph L.(ed.),*Moral Education: A First Gener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N.Y.: Praeger.1980, pp.20-7.
- Kohlberg, L. (1984).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II,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al and Validity of Stages*, N.Y. Harper & Row.
- Kohlberg, L. (1985). *The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in Theory and Practice*.

- Berkowitz et. al.(eds.),Moral Education :Theory and Applic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 pp. 27-7.
- Kohlberg, L., Levine, C. & Hewer, A. (1983). *Moral Stages: A Current Formulation and Response to Critics*, N. Y. Karger.
- Lyons, N. P. (1983). Two Perspectives: On self, Relationship,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53, No.2, pp.125-145.
- Maccoby, E., and Marti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Heatherington, E. (ed.), *Mussen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4, 4thed., Wiley, New York, pp. -102.
- Markus, Hazel R.; Kitayama, Shinobu (1991)*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1991, Apr. Vol 98(2) 224-253
- Mead, G.H. (1934) *Mind, self, and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lissa.A.Lewis & Clayton Neighbors (2005). Self-Determination and the Use of Self-Presentation Strategi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5, No. 4, pp.49-489.
- Neisser, U. (1988). Five Kinds of self-knowledge.*Philosophical Psychology*, 1, 35-59.
- Neisser, U. (1994). Self-perception and self-knowledge.*Psyke & Logos*,15, 392~407.
- Olaf Koller & Jurgen Baument (2006). Self-Esteem,Academic Self-Concept, and Achievement: How the Learning environment Moderates the Dynamics of Self-Concept:*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0, No.2, pp.334-349.
- Vreeke G. J. (1991). Gilligan on Justice and care: two interpretations. *Journal of Mora Education*.20(1), pp.33-45.
- 1 차원고접수 : 2008. 5. 9.  
심사통과접수 : 2008. 6. 3.  
최종원고접수 : 2008. 6. 11.

##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Relational Self on Moral Development in Korean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Seonghee Kim**

**Hee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relational self on moral development in terms of gender. The subjects were 53 males and 47 females undergraduate students aging from 19 to 29 years old. With the inventory of the Korean Defining Issue Test(DIT), Relational Self Scal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PPA) were use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verall relationships among moral development, attachment and the relational self were significant with sex differ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regression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and 'positive relationship experience' factor on moral development in female groups, but not in male group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Gulligna's moral development theory.

*Key words : relational self, attachment, moral development, gender category*